

2025년 3월 27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 및 관심종목

*CP 2025년 3월 26일

SKT(017670)

BUY | TP 70,000원 | CP 55,800원

KT(030200)

BUY | TP 70,000원 | CP 49,800원

LGU+(032640)

BUY | TP 14,000원 | CP 10,760원

통신서비스 4월 투자 전략

1분기 실적과 분기 배당금 발표가 통신주 올릴 것

4월 매력도 '높음' 유지, 4월에도 KT와 LGU+ 위주로 통신주 비중확대 추천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2025년 4월 투자 매력도 '높음'을 유지한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우수하게 발표될 것임에 따라 2025년 연간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KT의 1분기 배당금 발표와 LGU+의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를 계기로 밸류업 기대감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닝 시즌이라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 위주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되며 더불어 분기 배당금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표적인 관련 종목으로는 KT를 꼽을 수 있겠다. 3월과 마찬가지로 4월에도 KT가 통신주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LGU+가 쫓아가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월 빅 이슈는 KT 분기 배당금과 1분기 실적, LGU+ 자사주도 관심 모을 것

4월 주요 통신 이슈는 1) 1분기 통신 3사 프리뷰 발간, 2) LGU+ 자사주 소각 및 추가 매입 이슈 부상 가능성, 3) KT 1분기 배당금 전망, 4) 공정위 과징금 발표에 따른 규제 리스크 소멸 기대감, 5) 2025년 통신 요금 인하 이슈, 6)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유통시장 변화, 7)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 발표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4월 부각될 제반 이슈로 보면 통신주 약세 요인을 찾기 어려워 보이며 호재가 다수 포착된다. 인위적인 통신 요금 인하 권고 뿐만 아니라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 시장 과열 가능성도 낮은 반면 실적 기대감 상승 및 밸류업 이슈 부상 가능성 때문이다. 그동안 투자 심리를 짓누르던 규제 리스크는 사실상 소멸되었다는 판단이다. 향후 상법 개정안은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공정위 과징금 발표를 끝으로 더 이상 나올만한 규제 관련 악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적과 더불어 밸류업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어 4월 통신주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12개월 Top Pick KT로 유지, 4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KT>LGU+>SKT 순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통신서비스 2025년 4월 월간 Top Pick 역시 KT로 제시한다. 더불어 4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KT>LGU+>SKT로 평가한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며 파격적인 분기 배당금 증가 기대되는 KT 집중 매수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오랜만에 높은 이익 성장 예상되며 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LGU+ 역시 서서히 매수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3월 통신주는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4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종목별 주가 차별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1. 4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장기 실적 전망 밝고 주주이익환
원 규모 감안 시 절대 저평가 상
황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장기 이익 전망 및 시중 금리 동향을 감안하면 국내 통신 3사 기대배당수익률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고, 2) 2025년 가을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새로운 요금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며, 3) 국내 통신 3사 주주이익환원규모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가 상승 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고, 4) 2025년도엔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며, 5) 본질적으로 2026년 하반기에나 통신사업 이익 성장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2025년 이후 차세대 서비스 개시 기대감으로 Multiple 확장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4월)	투자의견 (3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 과도하게 높은 통신 3사 기대배당수익률 정상화 전망 2025년 가을 주파수 경매 이후 신규 요금제 출시 전망 - 통신 규제 정책 2025년엔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 주주이익환원규모 증가분 대비 통신주 상승 폭 미미 -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4월 통신주 투자 매력 높음, 우수한 1분기 실적과 분기 배당 발표, 자사주 기대감이 주가 올릴 것

2) 4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1분기 실적과 주주이익환원 이슈에 주목해야

2025년 4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우수함에 따라 2025년 연간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KT의 1분기 배당금 발표와 LGU+의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를 계기로 밸류업 기대감 상승이 예상된다.

2025년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하여 통신 3사는 우수한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통신 3사 모두 전년동기비 영업이익 성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 분양 이익 계상이 예정되어 있는 KT 실적 호전이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영업비용 부담이 줄어든 LGU+ 역시 영업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과징금 반영에 대한 걱정도 없다. 2024년 4분기 실적에 공정위 과징금 관련 비용을 기반영하였기 때문이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될 것이라 2025년 연간 통신서비스 업종 이익 성장 기대감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주가 선반영이 예상된다.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투자자들의 특성상 1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연간 실적을 전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1분기 KT 배당금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T의 분기 배당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KT 본사 실적 전망을 감안할 때 그렇다. 1분기 배당금 결정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4월 KT 주가는 1분기 실적 및 배당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1분기 실적만 가지고 획기적인 배당 증액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동결할 가능성도 낮아 1분기 KT 배당은 대략 600원 수준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4월 배당락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공산이 크며 연간 DPS 2,400원/6,000억원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6만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KT가 분기 배당금 700원으로 획기적인 인상을 발표한다면 단기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7만원까지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만하다.

LGU+의 경우엔 자사주 소각 및 추가 매입 발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의 경영진 언급을 감안하면 그렇다. 기존 보유 자사주 700억원 소각 발표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 발표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 발표를 계기로 과거 2,800억원 수준의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2025년을 기점으로 3,5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12,000원까지 주가 상승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LGU+의 자사주 매입/소각 행태가 자사주 선 매수 후 소각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번 자사주 매입분 중 일부를 2026년 소각할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4월)	투자 매력도 (3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4	-	• 1분기 통신 3사 연결 영업이익의 합계 YoY 35% 증가 예상 • KT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예상, LGU+ 오랜만에 실적 좋을 듯 • 공정위 과징금 당초 예상치 크게 하회한 1천억원 수준으로 발표 • 통신 규제 리스크 사실상 소멸, 실적/밸류업 기대감 상승 중 • 2025년 통신 3사 연결영업이익의 합계 YoY 60% 성장 전망 • KT 조직 개편에 따른 본사 인건비 감소액 5천억원 예상 • LGU+ 상각 부담 감소, 2025년 두 자리 수 영업이익 성장 전망 • KT 25년 연간 총 주주이익환원 규모 9,500억원에 달할 전망 • LGU+ 700억원 자사주 소각, 1천억원 자사주 추가 매입 전망 • KT 주주이익환원 규모 2배 증가, 주가 상승 폭은 50%에 불과 • LGU+ 주주이익환원 규모 25% 증가, 주가 상승 폭은 7% 수준 • 제조사간 경쟁 미약, 국내 통신유통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 제 4 이통 주파수 할당 대가 일시납 추진, 선정 가능성 희박 • OECD 통신 요금 비교 발표, 국내 통신 요금 저렴 평가 • 네트워크 경쟁 이슈 재발, 조기 대선에도 요금 인하 리스크 감소 • LTE 주파수 재할당 이슈로 2025년 가을 국내 주파수 경매 유력 • 2025년 말 이후 5G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 예상 • LTE/5G 도입 당시 대비 현재 통신사 Multiple 너무 낮은 상황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3월 통신주 종목별 차별화 양상 전개, KT 강세/SKT 약세 시현

3) 3월엔 KT 위주로 통신주 상승, 주가 차별화 양상

3월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과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KOSPI가 상승하고 IT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통신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25년 실적 호전 기대감 및 밸류업 이슈가 부상하고 규제 리스크가 소멸하면서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이 사항은 통신 3사별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KT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및 1분기 배당금 증액 이슈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록한 반면 SKT는 2025년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익 성장, 배당금 정체에 대한 실망감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졌다. LGU+의 경우엔 탄력적인 주가 반등을 나타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바닥권 탈출 시도에는 성공하는 모습이었었는데 2025년 이익 턴어라운드, 자사주 매입/소각 기대감이 가장 큰 주가 상승 원인이었다.

도표 3. 2025년 3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0.2	2.1	0.9	(5.1)

주: 지수는 3/25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verse, 하나증권

도표 4. 2025년 3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3.6)	(1.2)	(2.3)	(8.4)
KT	4.6	8.5	5.0	1.3
LG유플러스	1.5	(1.7)	1.4	(8.9)

주: 주가는 3/25일 종가 기준
자료: Quantiverse, 하나증권

4) 4월 통신주 투자 환경 양호 평가, KT가 끌고 LGU+가 밀고 간다

실적과 배당/자사주가 주된 상승
원인 될 것, 규제 리스크 해소도
긍정적

3월 통신주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KT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LGU+도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4월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어닝 시즌이라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 위주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되며 더불어 분기 배당금 발표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표적으로 KT를 꼽을 수 있겠다. 아마도 4월에도 KT가 통신주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LGU+가 쫓아가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월엔 통신 이슈가 많은 편이다. 1) 1분기 통신 3사 프리뷰 발간, 2) LGU+ 자사주 소각 및 추가 매입 이슈 부상 가능성, 3) KT 1분기 배당금 전망, 4) 공정위 과징금 발표에 따른 규제 리스크 소멸 기대감, 5) 2025년 통신 요금 인하 이슈, 6)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유통시장 변화, 7)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 발표 가능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4월 부각될 제반 이슈로 보면 통신주 약세 요인을 찾기 어려워 보이며 호재가 눈에 다수 포착된다. 국내 조기 대선에 따른 인위적인 통신 요금 인하 권고 뿐만 아니라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 시장 과열 가능성도 낮은 반면 실적 기대감 상승 및 밸류업 이슈 부상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OECD 국가간 요금 비교 결과를 보면 국내 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소비자출대비 가계 통신비 비중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요금 인하 추진 명분이 약화될 수 밖에 없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 권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 시장 과열 가능성도 낮다. 우량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칠 만한 이벤트도 부재한 가운데 제조사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발표를 계기로 규제 리스크는 크게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반면 KT와 LGU+의 양호한 실적 발표 및 주주이익환원 증대 움직임은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가 1분기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는 가운데 LGU+가 오랜만에 높은 이익 성장을 나타낼 것이며 KT는 분기 배당 증가, LGU+는 자사주 매입/소각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가올로 예상되는 국내 주파수 경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금제 개편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어 통신주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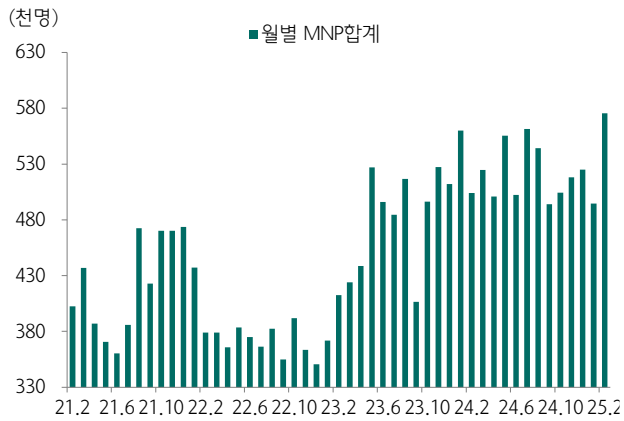
도표 5. 4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4월 KT를 중심으로 통신주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전망, 1
분기 실적과 분기 배당이 상승
요인 될 것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 2025년 1분기 KT와 LGU+ 연결 영업이익 큰 폭 증가 전망, 25년 이익 증가 기대감 커질 것 • 낮은 기저에 힘입어 25년 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 24년 대비 60% 성장 전망 • KT 2025년 2,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예정 • LGU+ 700억원 규모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여부 결정 예정 • KT 5월 분기 배당 증액 여부에 관심 집중, DPS 600~700원으로 YoY 20%/40% 증가 전망 • LGU+ 6월 내 1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사주 취득 여부 결정 예정 • 25년 주주이익환원 KT 9,500억원/LGU+ 3,500억원 예상, 2년 전 대비 각각 90%/25% 증가 전망 • 경쟁 상황 감안 시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 존재, 하지만 인위적인 통신 요금 인하 권고 가능성 낮음 • KT 인건비 감소로 2025년 본사 영업이익 급증 예상, 배당금 5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증가 전망 • LGU+ 무형자산상각 부담 감소, 2025년엔 두 자리수 영업이익 증가 전망 • LTE 주파수 재할당 이슈 감안 시 2025년 가능 5G 추가 주파수 경매 사실상 유력해진 상황 • 2025년 가을 이후 신규 주파수 투자 돌입 예상, 2025년 말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 전망 • 미국 FCC 주파수 경매 의견 청취 중, 2025년 내 신규 5G 주파수 경매 진행 예상 • 정책 금리 인하 및 시중 금리 하락으로 통신사 높은 배당수익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시장 진입 실패, 당분간 재추진 가능성 낮아 • 2025년 통신요금인하 보단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로 규제 정책 전환 예상
부정적 요소	• 경기 회복 기대감 커질 시 상대적인 통신주 매수세 유입 약화 예상 • 일회성 이익/비용 제거 시 25년 통신사 이익 사실상 정체 예상 • 단통법 폐지, 번호이동가입자수 증가/마케팅비용 증가 리스크 낮지만 시장 우려 여전 •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 이동전화 요금제 개편 시급한 상황이지만 신규 요금제 출시 2025년 말로 지연 • 5G 순증 가입자수 월 20만명대로 급감,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우려 커질 전망 • 이동전화매출 성장률 뚜렷한 둔화, 매출 정체 우려 커질 전망 • AI 등 신사업 성과 부진, 유료화/요금제 도입 험난한 상황 •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 30GB 미만 중저가 5G 요금제 다량 출시, 요금 과소비 축소/낙전수익 감소 예상 • 2025년 투자 유망한 KT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약점 존재
종합 평가	• 통신서비스 25년 높은 이익 성장 전망, 주주이익환원수익률로 보면 특히 KT 매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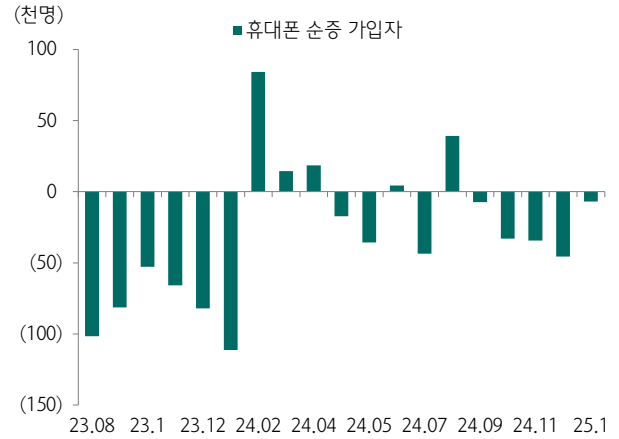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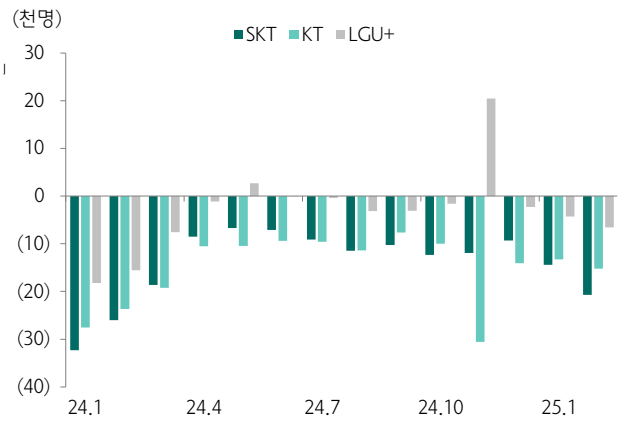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7. 휴대폰 순증가입자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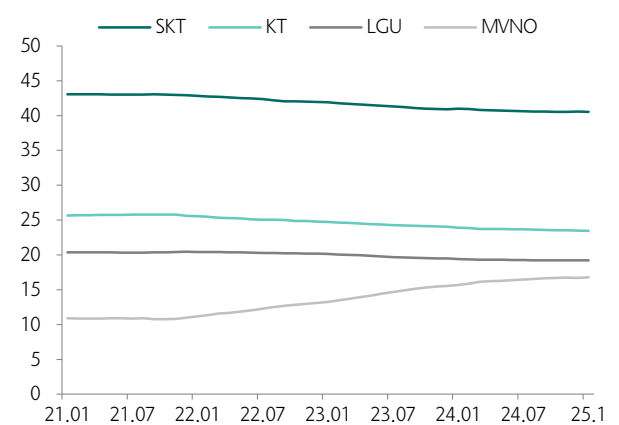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8.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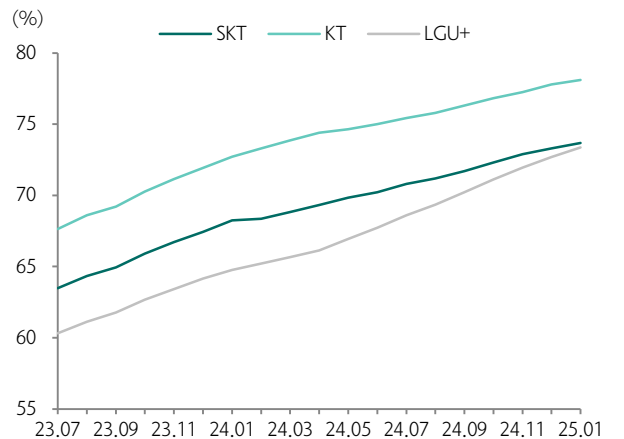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9.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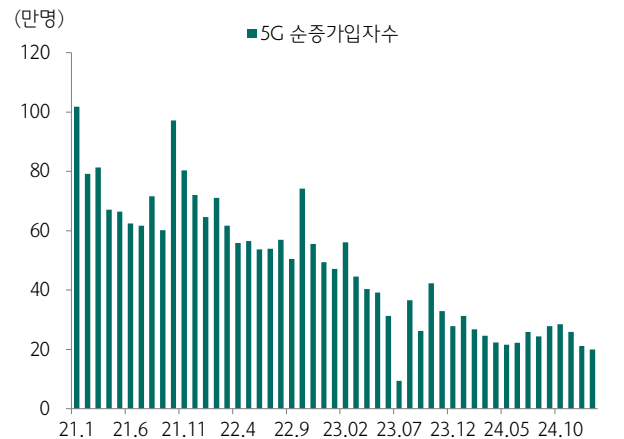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0.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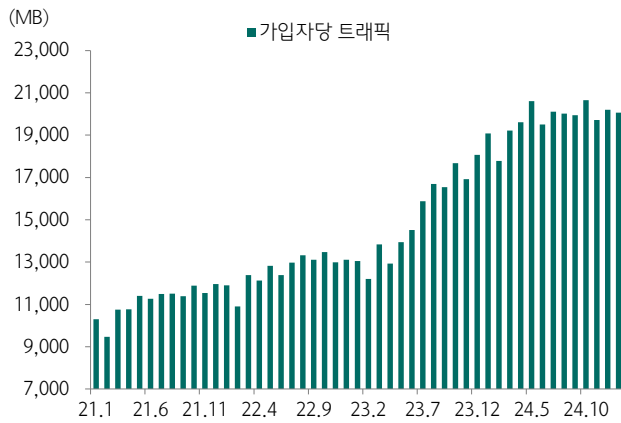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1.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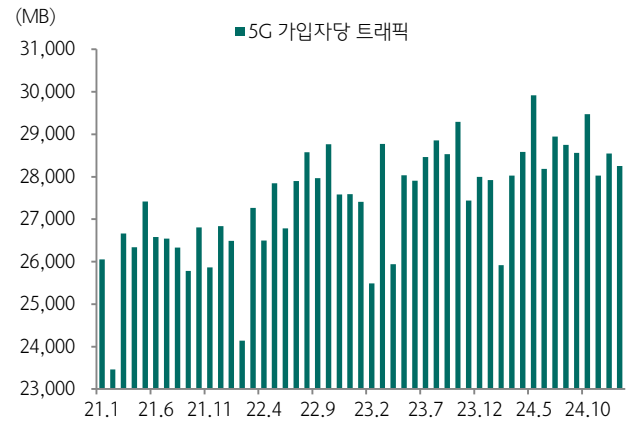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2. 전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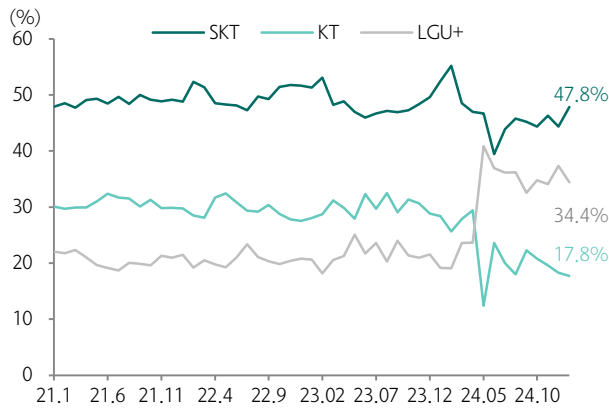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3.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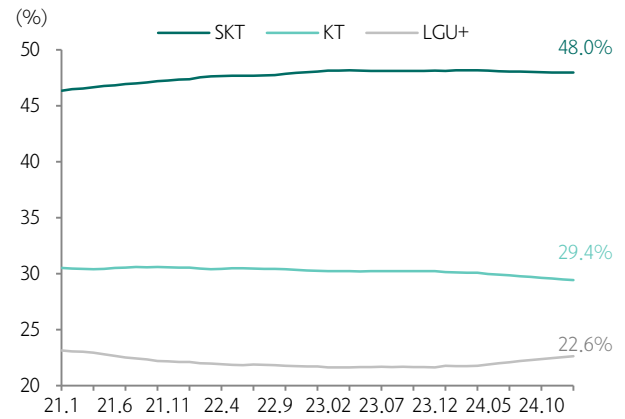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4.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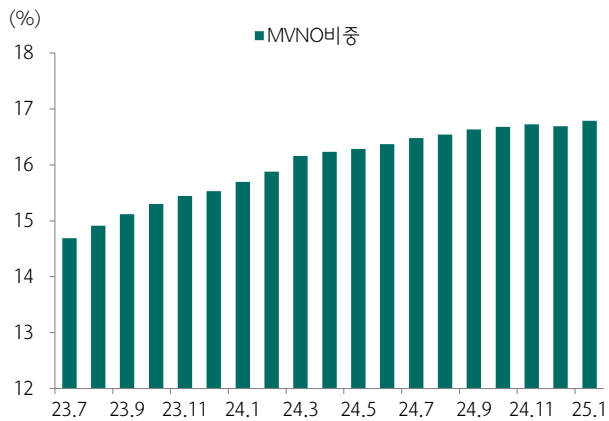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5.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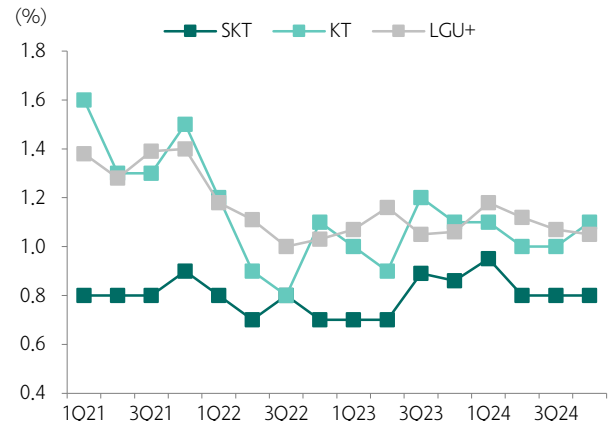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6.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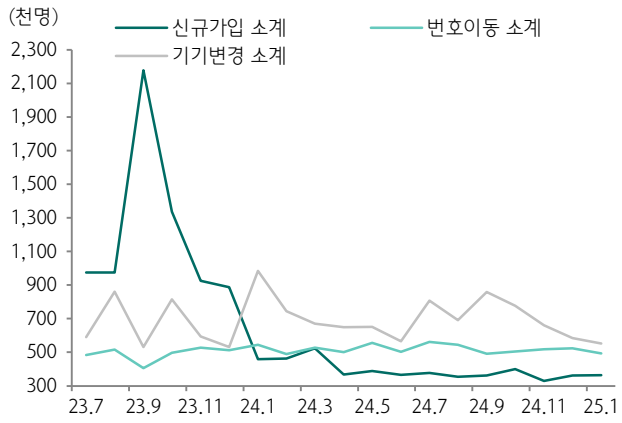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7.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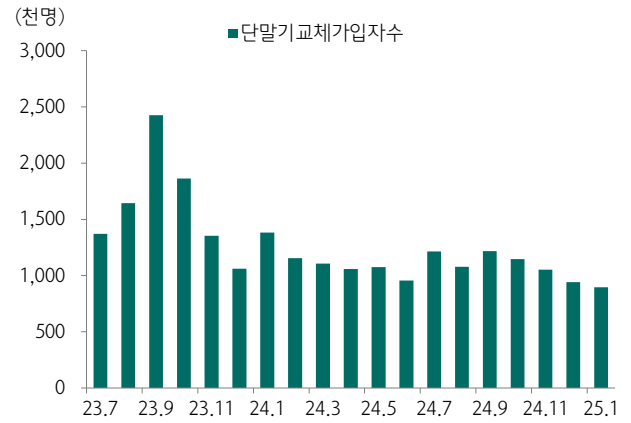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18.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19.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은 KT로 유지, 4월 투자매력도는 KT>LGU+>SKT 순

1)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
2025년 높은 이익/배당 성장
예상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성장률, 3) 기대배당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 하면 통신 3사 중 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KT를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주주이익환원규모 대비 현재 시가 총액이 너무 적고 주주이익환원 증가분을 감안하면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KT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2023년 5천억원에서 2025년 9,500억원으로 9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주가 상승 폭은 50%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 네트워크 자회사 물적 분할을 통한 조직 개편 효과도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본사 이익 증가를 통한 배당 재원 증대와 더불어 조직 슬림화 통한 수익성 향상, 원활한 신사업 육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025년도엔 KT가 주도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도표 20.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KT	- 기저 효과로 2025년 이익 급증 예상 2025년 주주이익환원 규모 9,500억원으로 급증 예상 - 실질 자산가치대비 시가총액 적은 상황 - 조직 개편으로 본사 기업 가치 상승 전망	-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3사 중 ROE 가장 낮은 편 - 경쟁사대비 과도한 영업비용, 방대한 자산 규모 - 가입자 M/S 하락 추세
SKT	24년 기저 낮아져 25년에도 이익 성장 지속할 전망 - 일시적 비용 증가 효과 종료, 수익성 개선 전망 -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것 -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수혜주, 높은 주주이익환원 지속될 전망	- 단기 배당 정체 양상, 높은 배당 성향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률 둔화 양상 - AI 사업 성과 부족 - 상대적으로 높은 PER/PBR 수준
LGU+	-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 조달 금리/기대 배당수익률로 보면 자사주 매입/소각 가능성 충분 - 통신 3사 중 최근 3년간 서비스매출액 성장 폭 가장 큰 상황 -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 MNO 가입자 성장 정체, 가입자 질 저하 -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 알뜰폰 M/S 규제 시 가입자 성장 정체 예상
종합평가	2025년 본사/연결 영업이익 및 DPS 급증, 높은 주주이익환원 수익률을 감안하여 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4월 매력도는 KT>LGU+>SKT 순, KT 비중 확대 지속/LGU+도 매수해야

4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KT>LGU+>SKT 순으로 평가, 1
분기 배당 확대 기대되는 KT를
최선호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2025년 4월 월간 Top Pick 역시 KT로 제시한다. 더불어 4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KT>LGU+>SKT로 평가한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며 파격적인 분기 배당금 증가 기대되는 KT 집중 매수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오랜만에 높은 이익 성장 예상되며 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LGU+ 역시 서서히 매수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

KT를 4월 월간 최선호종목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1분기 본사/연결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1분기 배당금 및 연간 배당금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외국인 매도가 어려운 가운데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면서 수급상 강점을 나타낼 전망이다. 물론 KT 주가가 2024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나타내면서 단순 주가 상으로 보면 가격 부담이 커진 것은 맞다. 하지만 2023년대비 2025년 추정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신주의 경우 장기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24년 하반기 34,000원 수준에서 주가 상승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말 7만원 근방까지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배당락 우려로 3월 말 잠깐 KT 주가가 주춤했지만 1분기 프리뷰가 본격화되는 4월 초부터 KT 주가 상승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란 판단이다.

4월엔 LGU+도 투자 유망하다. 오랜만에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다. 2025년 연결 영업이익 증가 전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지난 2024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의 경영진 언급을 감안할 때 700억원에 달하는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신규 자사주 매입 추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5년 뿐만 아니라 2026년에도 총 주주이익환원 규모가 3,500억원에 달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점진적 주가 반영 시도가 예상된다. 4월 12,000원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SKT의 경우엔 4월에도 KT/LGU+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젠 통신업종 내 시가총액 2위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미 장기 배당금 전망이 KT대비 큰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2024년과 달리 2025년도엔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이익 성장을 나타내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처럼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나타내기엔 재료가 부족하다.

도표 21.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의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KT	매수	70,000원	2025년 괄목할만한 실적 호전 예상, 주주이익환원 규모 증가분 대비 주가 상승 폭 적음
SKT	매수	70,000원	장기 안정적 이익 성장 기조 유지될 전망, 기대배당수익률 높은 편
LGU+	매수	14,000원	2025년 이익 증가 전환 기대감으로 주가 오를 것, 25년 자사주 소각 예정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축소, 2)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22. 4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3/25)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KT	50,000원	47,000~70,000원	6.4	0.7	주주이익환원 증가 폭 감안 시 주가 상승 폭 크게 나타날 전망
2	LGU+	10,800원	10,000~12,000원	7.9	0.5	2025년 이익 증가 전환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전환 예상
3	SKT	56,100원	54,000~62,000원	10.0	1.0	25년에도 이익 성장 전망되나 배당 정체 예상

주: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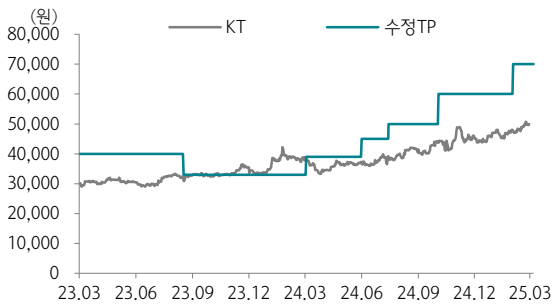
도표 23. 4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4월)	순위(3월)	순위 변화	사유
KT	1	1	-	조직 개편 효과 강력, 주주이익환원 증가 분 대비 주가는 크게 못 오른 상황
LGU+	2	2	-	이익 성장 및 주주이익환원 규모 증가 기대감 상승 중
SKT	3	3	-	기대배당수익률 높지만 배당금 정체 우려 커지는 상황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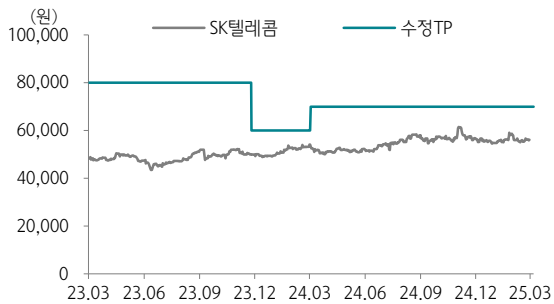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5.2.27	BUY	70,000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24.6.26	Neutral	45,000	-17.00%	-11.44%
24.3.28	Neutral	39,000	-7.79%	-3.33%
23.9.11	Neutral	33,000	5.93%	27.88%
23.3.7	BUY	40,000	-23.13%	-16.7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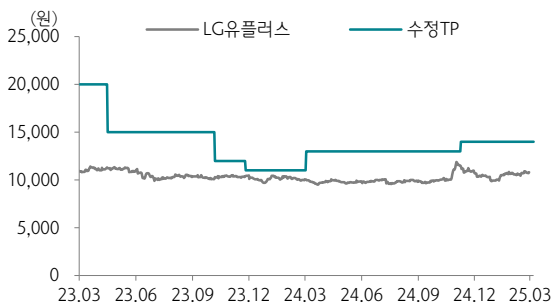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4.3.28	BUY	70,000		
23.12.21	BUY	60,000	-14.64%	-9.83%
23.3.29	1년 경과		-	-
22.3.29	BUY	80,000	-35.43%	-21.88%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과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4.12.4	BUY	14,000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23.12.21	Neutral	11,000	-8.00%	-4.64%
23.11.1	BUY	12,000	-13.67%	-12.50%
23.5.11	BUY	15,000	-29.73%	-24.47%
23.3.29	1년 경과		-	-
22.3.29	BUY	20,000	-39.47%	-26.25%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5년 3월 2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 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재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3.15%	6.39%	0.46%	100%

* 기준일: 2025년 03월 24일